

고흥군, 일본 기업과 김 수출협약 체결

고흥 김, 일본 수출·유통 시장 확대

신규 시장 개척·개발 지원 등 추진

고흥군은 최근 일본 기업, 고흥군수협 등 수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고흥 김 600만불 일본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협약은 고흥군-고흥군수협-일본 킨바라노리텐의 3자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흥 김의 일본 수출 및 일본 내 유통 확대를 위해 이루어졌다.

일본은 연간 10억장의 김이 소비되어 한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고흥 김의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킨바라노리텐 사는 도쿄에 소재를 둔 김 전문업체로서 향후 고흥군에 지사를 설립하여 김 가공·보관시설 등을 신축하고 일본 김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이 적은 수산물 또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 신제품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흥재 수협장은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생산 어업인들의 시

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군과 협력하여 다양한 수산물을 수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차 오션브리즈, 아마존서 신제품 1위

세계 시장에서 제품력으로 한국차 우수성 알리

지난 4월 15일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런칭 한 보성차 오션브리즈(ocean breeze)가 아마존 사이트 내 'matcha tea' 카테고리에서 신제품 1위를 차지했다.

오션브리즈는 아마존 런칭 8일 만에 미국, 중국, 일본차 제품을 누르고 23일부터 현재까지 신제품 'matcha tea'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보성군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청정 특산물에서 자란 보성녹차의 특성을 살리면서 해외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오션브리즈(Ocean Breeze)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했다.

또한, 국제유기인증을 받은 농가의 첫잎만을 이용해 100% 유기농 녹차, 블렌딩 차, 가루 녹차 등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어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

보성군은 연간 250만불(30억원) 수출을 목표로 아마존뿐만 아니라 윌프드마켓, 텍사스 프리미엄 마켓 등 유기농 프리미엄 제품만을 취급하는 미국 메인스트림 시장 진입도 계획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차 제2



의 부흥기를 열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이번 해외진출에서 많은 분들이 보성차를 사랑해 주신데 감사하고, 특히 말차 분야에서 일본제품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보성차의 위상뿐만 아니라 한국차의 제품력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성차 아마존 진출은 2018년 11월부터 준비해 왔으며, 작년 6월 보성군수를 비롯한 시장개척단이 미국 LA를 방문해 아마존 벤더 업체 Kreassive LLC(대표 Sean Chan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본격 추진



광양시는 2019년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봉강면 하조마을, 옥룡면 죽림마을 2개 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마무

리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최소 30가구 이상 농어촌 지역에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등 주택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또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위생·안전 등 긴요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추진된다.

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 후 공사를 발주했으며, 지난 21일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양순 농촌협력팀장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마무

리되면 낙후된 농촌지역 마을의 생활과 위생, 안전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억 원을 투자하여 광양읍 무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준공했으며, 광양읍 마산마을, 진상면 청원마을, 진월면 장재마을 3개 지구가 지난 달 2020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광양읍 익산마을, 옥곡면 장동마을, 진상면 신화마을 3개 지구를 2021년도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취약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앙코르 해동' 성료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은 2020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앙코르 해동'을 최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당초 3월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5일로 연기해 진행된 이번 공연은 1부는 '봄의 시작'(오페라 '조선 브로맨스')을 주제로 열렸다.

이어 2부 주제 '오늘 난 담양에 간다'(인디밴드 '우물안 개구리', '88keys', '제8극장')공연으로 지역민과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했다.

또한 동시에 개관한 어린이 예

술동 '소동동'에서의 '나, 너, 우리' 전시로 인해 아이들이 전시를 체험하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관람문화를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공동체에서 행사에 오신 분들에게 무료로 친환경 음식을 제공하는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재단 관계자는 “잠시나마 걱정을 내려놓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대중과 함께 하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담양을 누구나 즐겨 찾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앙코르 해동' 프로그램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동문화예술촌 페이스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담양=박종영 기자

순천시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 위해 쟁결음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순천시는 올해 말 예정된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순천 도큐멘타 생태아카이빙' 등 예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기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지정된다.

문화도시 예비사업은 문화도시 지정 후 추진할 본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지금까지는 향동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문화 특화사업이 추진됐지만 순천시가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문화도시 예비사업'은 순천시 전역을 사업 범위로 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곡성, 행복가득 여성농업인 바우처 발급

곡성군이 올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카드발급을 시작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곡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이다. 초기

에는 자부담 1만원을 포함한 10만원 한도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했으나 작년부터는 자부담 2만원이 포함된 20만원 한도로 상향했다.

곡성군은 올 3월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을 접수해 이번에 2,827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대상자들은 신청 시 안내받은 농협에서 다음달 4일부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범한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